



cpbc 라디오 FM105.3MHz | 스마트폰 어플 | cpbc 빵



I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도
즐거 듣는 방송!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는 중독성 강한 방송!
모든 고정관념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바로 그 방송!

cpbc 창립 30주년을 맞아, 2018년 5월15일 시원하게 첫 전파를 쏘아 올린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cpbc 라디오 뿐 아니라 한국 가톨릭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캐릭터! 돌아온 탕자! 박철 라우렌시오와 함께 해주세요.

선교? 예능? 음악? 휴먼다큐? 빵빵한 라디오는 매일매일이 새롭다!



돌아온 탕자가 들려주는 오늘의 복음부터 속세의 이야기! 클래식, 성가, 가요, 가곡, 연주곡 등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 선곡!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묵직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전화연결! 어디로 튈지 몰라 정신없으시나요? 그게 바로 빵빵한 라디오의 매력입니다. 가톨릭도 유쾌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는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와 함께 날려 버리세요!

방송시간: (월-토) 저녁 18시5분~20시 | 진행: 박철 라우렌시오

구성: 박해나 글라라 | 연출: 정혜인 아네스, 윤기혁 비오



빵빵한 라디오의 유일한 고정 코너!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탕자와 목자'

어떤 경우에도 이혼은 절~대하면 안 되는 건가요?

미사보는 왜 써야 하나요? 한국 교회 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사랑, 행복, 미움 등 가장 근본적이고 인간적인 주제에 관한 '탕자와 목자'의 솔직한 이야기! cpbc 주간 이길재 베드로 신부와 함께 속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 매주 목요일, #1053 문자메시지(100원의 정보이용료)로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아니, 말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깜짝 초대석'



어렵게 느껴지는 음악도 쉽게 소화합니다.(with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그레고리오 님) 뮤지컬과 드라마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with 배우 원기준 그레고리오) 찬양사도들의 뜨거운 신앙 고백도 함께합니다.(With 신상옥 안드레아) 이 밖에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깜짝 손님 방문을 기대해주세요!

cpbc 창립 30주년 특집 공개방송

명동성당으로 가자

07.14(토) 20시 가톨릭회관 앞 마당

한국 교회의 중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
명동에서 펼쳐지는 시원한 음악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공연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 가능합니다

진행 박철 라우렌시오

출연 김도향, 박상민, 박기영, 진성, 신상옥, cpbc소년소녀합창단

주최 주관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후원 한국교회사상연구소